

환자의 권리와 인격을 소중히 여기는 국내 최초 대학 정신과 전문병원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이 찾아가는 곳은 병원의 신경정신과 등이나 특수 클리닉 등이다. 하지만 입원을 해야할 경우에 대학병원 등에서는 여건상 한달 이상 입원하며 치료받기가 곤란해, 꾸준하고 세심한 치료가 필요한 정신질환 환자들에게 애로사항이 많다. 이러한 환자들이 중·장기 적으로 치료를 받을 수 있는 국내 유일의 대학 정신과 전문병원이 있어 찾아가 보았다.

건강한 정신을 위해

경기도 광주에 위치한 세브란스 정신건강병원은 탁 트인 녹지대에 위치해 있어, 건물 위에서 내려다보면 그 많은 산들이 다 눈 높이에 위치해 있다. 이처럼 좋은 경치는 넓은 산책로와 운

동시설 및 연못 등과 함께 이 병원을 찾은 환자의 빠른 쾌유를 돕고 있다.

이곳 세브란스 정신건강병원에서는 노인정신건강증진을 위한 노인정신건강센터와 첫 발병하는 정신분열증의 재발을 방지하고 난치성 정신분열증 환자의 증상조절과 안정상태의 유지를 돕는 정신분열증 클리닉, 그리고 기분장애센터, 알콜 및 약물남용센터, 스트레스와 관련된 정신질환의 치료뿐만 아니라 현대인의 스트레스 관리에 대한 프로그램을 시행하는 스트레스 클리닉 및 정신질환에 동반되는 내과적 질환들에 대한 치료를 하는 가정의학과(내과)등이 있어 다각적으로 전문진료를 실시하고 있다.

이홍식 병원장은 올해 취임하면서 노인병동을 확장하고 노인정신건강센터를 개설했다. 이홍식 병원장은 사회가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정신질환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지만 고가의 장비로 진단하는데만 그치는 것이 아쉽다며 세브란스 정신건강병원이 노인들의 치매와 우울증을 감당할 수 있도록 준비하는 병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런데 왜 우리가 보통 말하는 정신병원이 아니라 정신건강병원인가? 하는 궁금증이 생긴다. 이홍식 병원장은 우선 사회의 편견과 오해를 없애기 위해서라고 말한다. 정신질환 환자의 범죄율이 일반인에 비해 높다는 객관적인 근거가 빈약한데도 범죄가 일어나면 우선적으로 정신질환 환자에게 시선이 집중되는 것은 흥미위주의 영화나 소설의 영향을 받은 일반인들의 편견이라고. 또한 환자들의 치료 외에도 정신질환을 예방하고 교육과 연구의 기능을 함께 하기 때문에 정신건강을 목표로 하게 되었다고 한다.

개인별 치료

세브란스 정신건강병원에서는 한 명의 환자를 치료하기 위해서 의사, 간호사, 사회사업가 및 임상심리사 등의 다양한 치료진이 동원된다. 이들은 역할분담을 통해 자신의 담당한 환자 개개인에게 필요하고 중요한 부분을 정확히 평가하고 분석해 진단 및 치료를 하고 있다. 또한 세브란스 정신건강병원은 외국의 대학과 공동협력체계를 갖춰 우리 나라의 실정에 맞게 응용한 최신 치료법을 도입하고, 대학병원에 걸맞는 연구 기능을 갖추고 있어 첨단 의 정신의학을 적용하고 있다.

이 외에도 환자들의 치료에 있어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가족들을 위한 프로그램도 마련하고 있다. 이를 통해 가족들은 알기 쉬운 교재를 통해 질환을 바로 이해하고 환자들을 도와줄 수 있는 방법들을 익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다.

민주적인 병실회의


세브란스 정신건강병원은 환자들에게 있어 민주적이다. 그 예로 환자 스스로 치료 환경을 변화시킬 수 있는 '병실회의'를 열고 있다. '병실회의'란 병실에서 근무하는 모든 치료진과 환자들이



▲ 세브란스 정신건강병원 이홍식 원장

함께 모여 병실의 제반문제를 토의하는 시간으로서, 민주적인 원칙하에 자유로운 토론이 이루어지는데 이 회의는 환자 중에 선출된 회장이 진행을 한다고 한다. 하지만 마냥 자유로울수는 없는 법. 병원에 입원한 환자들은 증상완화와 사회화를 촉진시키는 치료방법의 하나로서 기본적으로 권익체계의 적용을 받는다. 즉 환자의 병적상태, 병식정도, 병실생활 및 대인관계 능력에 따라 환자 스스로 누릴 수 있는 권리와 책임도 달라지게 되는 것이다.

저녁식사 시간쯤 되자 노인병동의 옥상 위에 마련된 산책코스에 어르신들이 하나 둘씩 나타나 걷기운동을 시작한다. 삼삼오오 모여 담소도 하고, 휴게실에 모여 TV시청을 하는 모습이 꽤 자유로워 보인다. 옆에서 딸 사랑을 하던 한 할머니는 "아직 산책은 허락되지 않았다."는 간호사의 말에 불평을 하면서도 순순히 휴게실로 향한다. 당장은 불편하지만 증상이 좋아지면 언젠가는 산책이나 외출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기 때문일게다.

이처럼 환자의 치료와 관리는 엄격하지만 환자의 권리와 인격이 존중되는 곳, 바로 세브란스 정신건강병원이다.  글 최현주 기자